

귀농 귀촌에서 귀농만족에 미치는 영향요인 분석: 가족 지지도를 조절효과 중심으로

이지흠 (호서대학교 벤처대학원 박사과정)*

하규수 (호서대학교 벤처대학원 교수)**

국 문 요 약

본 연구는 농촌흡인요인, 귀농준비정도, 귀농지 주거환경, 귀농 지원정책이 귀농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에 관해 가족요인을 조절효과로 반영하여 연구하였다. 이는 농촌으로 이주율이 증가하고, 귀농에 대한 관심이 증대 되는 시점에 농촌흡인요인, 귀농준비정도, 귀농지 주거환경, 귀농 지원정책이 귀농만족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지와 독립변수로 제시된 농촌흡인요인, 귀농준비정도, 귀농지 주거환경, 귀농 지원정책과 종속변수인 귀농만족도 간에 가족요인 조절효과를 분석하여, 귀농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들을 규명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본 연구를 위해서 귀농인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를 진행하였고, 최종적으로 237개의 유효한 설문지를 수집하였다.

수집된 자료는 인구통계학적 특성을 통제변인으로 하는 다중회귀분석을 진행하였고 가족요인 조절효과는 조절회귀 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농촌흡인 요인 중 경제적 요인이 높을수록 귀농 만족도가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고, 귀농준비정도에서는 작목준비가, 귀농지 주거환경에서는 안전성, 귀농지원정책에서는 창농지원이 귀농만족도에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족요인의 조절효과 분석결과 경제적 요인, 작목준비, 편리성과 귀농만족도 간에 가족요인의 조절 효과가 나타났다.

이러한 연구를 통해, 귀농만족을 높이고 도시로의 재 이주율을 줄이기 위해 귀농정책의 적극적인 지원과 귀농지의 안정성 그리고 귀농 흡인 요소에서 경제적인 이익이 증대시키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결론을 도출하였다.

핵심주제어: 귀농, 귀촌, 농촌흡인요인, 귀농준비정도, 귀농지 주거환경, 귀농 지원정책, 귀농만족도, 가족지지도,

1. 서론

1.1 연구 배경

압축 성장으로 급속한 근대화를 이룬 우리나라는 짧은 시간에 농촌을 떠나 도시로의 인구 집중화를 이루었다. 도시를 형성하게 되고, 많은 사람들이 농촌을 떠나 인구 집중화를 이루었다. 이로 인해 1980년 이후부터 농촌은 급격히 인구가 감소했고, 그 결과 농촌의 고령화, 농촌 직접투자의 감소, 농업인력 수급의 어려움을 겪고있다. 이러한 상황에 귀농인구의 증가는 농업분야의 일자리 수요발생과 농업연계 서비스 산업의 확대를 촉진하는 효과가 기대된다.

귀농인구는 1990년대 후반 1차 베이비붐 세대의 정년퇴직과 IMF 외환위기를 맞으면서 급속히 증가되어 왔다(박광주, 2006). 농림축산식품부(2017)에 의하면 2001년 880가구, 2005년 1,240가구 2011년 10,530가구 2015년 11,959가구 2016년 12,875가구로 증가 추세를 보여주고 있다.

이는 도시 은퇴자들의 인생2막에 대한 기대감과 창농을 새

로운 취업의 형태로 받아들인 젊은이들의 인식 변화, 전원생활에 대한 동경 등이 농촌으로의 인구 유입을 유도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하지만 귀농 이후 귀농지의 삶에 만족하지 못하고 도시로 역이주하는 재탈농화 현상도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으며,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경제적 수입과 귀농에 대한 막연한 동경, 준비되지 못한 농촌이주는 귀농 자체를 포기하게 만들기도 한다. 그러므로 귀농자들이 귀농에 실패하는 요인과 귀농시 만족도를 높일 수 있는 요인을 연구하여 더 많은 귀농자들이 귀농을 포기하지 않고 지속적으로 농촌에서의 삶을 유지하며 만족스러운 정착이 가능하도록 지방자치단체와 관련기관의 정책적 수요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1.2 연구 목적

본 연구의 목적은 다음과 같다. 첫째, 귀농 귀촌의 다양한 요소들 중에서 어떤 요인이 귀농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지에 관한 검증에 있다. 둘째, 독립변수로 제시된 농촌흡인요인, 귀농준비정도, 귀농지 주거환경, 귀농지원 정책과 종속변수인

* 제1저자, 호서대학교 벤처대학원 벤처경영학과 박사과정, land75@naver.com

** 교신저자, 호서대학교 벤처대학원 벤처경영학과 교수, ksh@hoseo.edu

· 투고일: 2017-09-19 · 수정일: 2017-10-13 · 게재확정일: 2017-10-27

귀농 만족도 간에 가족요인의 조절효과를 분석하고 귀농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들을 검증하여 성공적인 귀농을 위한 시사점과 정책적 제언을 하고자 한다.

II. 이론적 배경 및 선행연구

2.1 이론적 배경 및 선행연구

2.1.1 농촌 흡인 요인

Lee(1996)는 중력모형을 수정하여 지역 간의 인구이동은 각 지역의 압출요인(Pushfactor)과 흡인요인(Pullfactor)의 영향에 따라 인구이동 흐름의 방향이 결정되고, 거리에 영향을 받는 압출-흡인요인 모형을 제시하였다.

이희연, 외(2008)은 압출흡인이론에서 요인들의 중요도는 지역적, 시대적 상황에 따라 다르게 나타난다고 보고 농촌 지역에서의 저임금, 고용기회 감소, 교육·문화·의료시설 등의 낮은 환경 수준 등은 압출 요인으로 작용하는 반면, 저렴한 주택, 생활비 절감, 쾌적한 생활환경 등은 흡인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하였다. 이정관(1998)은 농촌인의 도시로 이동 요인을 두 가지로 구분하면 도시로의 흡인요인(Pull Factors)과 농촌에서의 배출요인이 있다고 주장했고 이는 서로 상호 관련으로 동시에 작용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농촌 이주 결정요인의 경우 전출지의 압출 요인보다는 전입지의 유인 요인이 더 크게 작용한다는 주장(이희찬·김현, 2006)이 유력하다.

박은경(2008)은 귀농의 주된 이유에 대해 전원생활에 대한 동경과, 노후대비, 건강관리 여건 때문으로 설명했다. 또한 정철영(1999)는 농업에 대한 인식의 변화와 종합산업으로의 농업의 전환이 농업인의 증대를 유도할 것이라고 이야기했다.

윤순덕 외(2005)는 은퇴 후 농촌으로 이주를 희망하는 이유로는 ‘복잡한 도시를 떠나 자연과 더불어 건강하게 살기위해, 남은 인생을 농촌에서 텃밭 등을 가꾸며 살기위해’가 다수를 차지한 반면, 장년층 도시민이 은퇴 후 농촌으로 이주하고자 하는 의사에는 농촌의 환경적 흡인요인이 강하게 작용하였다고 이야기하고 있다.

2.1.2 귀농 준비정도

서규선 외(2000)은 농촌 이주를 위한 사전준비와 연습과정을 가진 귀농인들은 대체로 농촌의 삶과 경제적인 성취 면에서 만족을 느끼는 반면, 계획 없이 귀농하거나 수동적인 이들은 농촌생활 전반에 걸쳐 많은 불만을 토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정섭·이정해(2017)은 귀농인중 연령대가 낮을수록 자금의 규모가 작았으며, 귀농인의 74.1%가 저축액과 보유자산을 처분해서 자금을 마련했고, 농지 및 시설투자 시 자금부족을 어려운점으로 응답하였다. 귀농·귀촌인 대부분은 단독주택에서 거주하고, 주택 점유 형태는 자가이 가장 많으며 귀농·귀촌인의 연령대가 낮을수록 자가 비율이 낮고, 귀농초기는 임차, 임시거주형태가 많은 것으로 연구하였다.

최윤지 외(2010)는 귀농 시 가장 필요한 사항으로는 재배사육기술(43.5%)과 운영자금(31.2%), 생산물판로(30.5%), 경영기

술(27.3%), 토지 구입자금(922.7%), 판매기술(22.1%) 순으로 희망하고 있다고 보았다. 강대구(2007)는 귀농시 어려움으로 귀농 초기에는 재배기술, 경영기술, 자금의 문제를 지적하였으나, 귀농정착기로 갈수록 자금문제와 노동력의 부족, 판로의 어려움 등을 주요하게 지적하였다. 김성수(2004)는 영농정착 과정을 귀농결심→가족동의→농작물선택→정착지물색→영농기술습득→주택농지구입→영농계획수립으로 유형화 했다. 이러한 결과를 요약하여 보면 귀농 준비인들은 농촌생활이 좋고 보다 인간적인 삶을 위하여 귀농을 결심한 경우가 많았고 구체적 준비하고 있다고 했다.

2.1.3 귀농지 주거환경

김유일(1988)은 주거만족도는 안전성, 편리성, 위치, 평면배치, 난방, 일조, 전망 등의 물리적 특성과 나이, 소득, 직업, 학력, 거주기간, 소유관계 등 가구특성이 관련된다고 하였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2012a)는 귀농·귀촌인구가 증가하는 상황은 사람이 살지 않는 마을이 생겨나는 농촌 현실에서 다행스러운 일이며 주거 문제를 주택 공급 문제에서 공동체 문제로 인식을 전환하여 대응하고 지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귀농·귀촌인이 농촌을 선택하는 이유는 ‘아름다운 자연환경’, ‘안심할 수 있는 먹을거리 자급자족’, ‘독립적인 생활’, ‘도시생활을 경제적으로 감당 할 수 없어서’, ‘자녀 교육을 위해서’였다. 그러나 귀농·귀촌을 고려할 때 앞으로는 ‘이웃과 더불어 살아갈 수 있어서’가 주요 이유가 되도록 해야 한다고 보고 있다.

조영재·조은정(2013)은 귀농·귀촌인의 주거환경에 있어서 거주자 수, 거주형태, 거주유형, 전 거주지에 관하여 일반마을과 전원주거 단지가 모두 유의한 결과를 보였다.+

2.1.4 귀농지원정책

귀농인이 안정적으로 정착하는 데에는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이 중요하며(이명호 외, 2013), 귀농인의 특성과 요구에 따라 차별적인 정책 마련과 집행이 필요하다고 하였다(강대구 외, 2006). 이환의(2011)는 귀농지원정책은 장기적 계획을 수립하고 지원법을 시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창완 외(2007)는 실제적인 지원을 위해 전남 차원의 귀농종합알선센터의 온라인상 운영, 귀농홍보대사(품목별, 지역별)의 위촉 활용을 제안하였다. 그리고 농도(農道)인 전남의 특성상 젊은 층이 유입 될 수 있도록 각종 인센티브와 지원 정책을 마련할 것을 주장하였다. 또한 귀농인들이 가장 원하는 영농기술 교육의 필요성을 제안하였다. 김정섭(2009)은 도시민의 귀농·귀촌의 활성화를 위해 농촌지자체의 역할을 강조하였다. 농림수산식품부(2009)의 보고서에서는 귀농·귀촌지원방안을 단계별로 구분해 제시하였고 이재철·이도선(2006)은 과학적, 체계적인 귀농정책을 세워 도시출신의 잠재 귀농인력 유인과 지역 활성화를 위해 청년층을 유인할 수 있는 각종 인센티브와 정책도입의 필요성을 제시하였다. Bosworth(2006)의 연구에 의하

면 농촌이주자는 농촌경제의 다양성을 증가시키고, 이에 따라 감소된 농가수입과 농업관련 일자리를 보전하는 데 매우 큰 영향을 끼친 것으로 나타났다.

Keeble et al.(1992)의 연구에서도 농촌 비즈니스 창업자의 66%는 이주민에 의해 창업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민수 외(2010)는 귀농 도시민은 초기 투자비 마련, 농업을 통한 소득 획득에 대부분 어려움을 겪고 있다. 따라서 영농을 통한 안정적인 농촌 정착의 한계(초기 투자비 높음, 소규모 영농으로 소득을 획득하기가 어려움)를 인정하고, 새로운 귀촌 전략에 대한 탐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박남규 외(2015)는 교육지원, 자금지원, 마케팅지원의 세 창업지원정책은 창업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친다고 주장했다. 박경옥·이상운(2012)은 주택 지원 정책에 있어 정부차원의 기준이 있는 지원방식에 대한 일괄적인 적용보다 지자체의 여건과 귀농·귀촌자의 요구에 맞게 비용의 조정지원을 적용할 수 있는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했다. 귀농 희망자들은 주택문제를 가장 중요한 문제로 인식하고 있고, 한국농촌경제연구원(2012b)는 주거문제가 중요한 사안임을 알 수 있다.

강미나 외(2012)는 농촌 주택구입 및 전세자금지원, 저리자금융자 효과(개·보수자금지원), 임대주택공급확대정책, 저렴주택 공급 정책, 주거급여(주택 바우처) 등이 효과가 있는지 검증하였다. 그 결과 주택구입비지원, 전세자금을 2% 저리로 지원할 경우 농촌가구는 15% 만큼 주거서비스 수준이 향상되는 정책효과가 있다고 추정했다. 이민수(2010)는 귀농초기에는 융자지원제도를 거의 이용할 수 없고, 담보가 있어야하며 토지를 소유하더라도 공시지가를 적용하여 평가하므로 정부 보증융자지원액(2억한도) 중 필요 자금을 융자 받기가 거의 불가능하므로 제도의 개선을 주장했다.

2.1.5 귀농 만족도

생활 만족이란 과거와 현재의 삶과 활동에 대한 전반적인 평가와 미래의 삶과 활동의 전망에 대한 긍정적인 정도를 의미한다(서병숙·이현, 1995). 김태현(1995)은 생활만족도가 노인들의 생활양식을 검증하기 위한 종속 변수로 간주될 수 있으므로 은퇴 후 노인들의 생활양식을 검증하기 위한 종속변수로 이용되면서 노년기 적응이나 성공적 노화 및 정신건강의 지표로 간주된다고 하였다. 임혜영(1999)은 주민과의 교류와 같은 관계성 요인, 상업시설의 편리성이나 환경 및 위생, 교통 및 접근성 등과 같은 환경적 요인이 생활만족도에 영향을 미친다고 보았다. 박광희·한혜경(2002)은 건강이나 경제상태와 같은 기존의 요인들 외에 존재가치와 같은 주관적인 심리상태가 생활만족도에 영향을 미친다고 주장하고 있다.

조영숙 외(2004)는 주거환경, 교육환경, 대중교통, 쓰레기환경, 여가환경, 보건 및 의료환경, 소득원, 이웃환경을 생활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지적하고 있으며, 박공주(2006)는 은퇴 후 귀농인의 농촌생활적응 관련 요인에 관한 연구에서 건강과 경제수준, 이웃주민과의 관계망 형성 노력,

영농교육 도움 수준, 농촌생활 인식정도 등이 매우 중요한 요인으로 분석하였다. 허철무·하규수(2014)는 지역 상황적 특성이 귀농만족도에 영향을 미칠 때 사회적 지지의 조절 효과는 없는 것으로 주장했다.

2.1.6 가족 지지도

가족지지도란 스트레스를 경험하는 상황에 노출된 개인을 정서적, 정신적으로 보호하는 방패나 완충역할을 함으로써 개인의 위기나 변화에 대한 적응을 도와주는 것으로 개인으로 하여금 순조롭게 위기에 대처하고 변화에 적응하도록 하는 역할을 한다고 정리했다(권은희, 2003). Kaplan et al.(1977)은 사회적 지지의 결여는 자신을 관리할 수 있는 능력이나 적응력을 약화시키며 특히 가족의 지지는 개인의 스트레스를 경감시키며 질병의 발병의 가능성을 낮춘다고 하였다.

김현실·조미여(1992)도 가족은 개인에게 있어서 가장 유력한 지지체계가 되며 개인은 가족을 통해 내적, 외적 긴장을 해소하고 안정감을 갖게 되고 이런 완충작용을 통해 가족은 개인의 건강을 유지하는데 공헌한다고 하였다.

김철규 외(2011)는 마을주민 조사를 통해 기존에 떠난 귀농·귀촌인의 원인을 사전 준비 부족으로 지적하였다. 마을 원주민들이 보기에 귀농귀촌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귀농귀촌하기 이전에 농촌사회에 대한 이해와 안정적인 소득원 확보, 가족의 지지와 농촌 생활에 대한 신념 등의 충분한 사전 준비가 필요하며, 귀농·귀촌한 이후에는 지역주민들과 친화적인 관계를 맺어가는 노력이 요구된다는 것이다. 많은 학자들은 가족을 하나의 지지체제로 보고 가족은 상호작용하며 개인 또는 집단으로 그 가족구성원들을 보호하고 지지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으며 위기상황 속에서 적응할 수 있도록 사회적 지지체계로서 일생을 통하여 그 중요성을 갖고 있다고 하였다(백영남, 2005).

또한 지지체계로서 가족은 전체성을 지닌 개방체계로 역동적 균형유지를 위하여 정보, 에너지, 물질을 서로 주고받으면서 사회적 규범으로 안정된 지지와 사랑을 서로 교환하고, 협조하는 능력을 가지며, 위기 상황 속에서 적응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일생동안 개인의 건강을 유지하는데 높게 기여한다고 하였다(김숙정, 1987).

기존 연구와는 달리 실제 귀농자를 대상으로 설문을 진행한 것과 가족지지도가 귀농만족도에 어떤 조절효과를 미치는 것을 확인한 것은 기존연구와 차별성이다.

III. 연구 설계

3.1 연구 모형

본 연구는 선행 연구 논문을 배경으로 다음과 같은 연구모형과 가설을 설정하였다.



<그림 1> 연구 모형

3.2 연구 가설

가설 1. 농촌흡입 요인은 귀농만족도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 1-1. 경제적 요인은 귀농 만족도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 1-2. 환경적 요인은 귀농 만족도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 1-3. 심리적 요인은 귀농 만족도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2. 귀농준비정도는 귀농 만족도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 2-1. 작목준비는 귀농 만족도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 2-2. 자가준비는 귀농 만족도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 2-3. 임대차용은 귀농 만족도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3. 귀농지 주거환경은 귀농 만족도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 3-1. 편리성은 귀농 만족도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 3-2. 안전성은 귀농 만족도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 3-3. 쾌적성은 귀농 만족도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4. 귀농지원정책은 귀농 만족도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 4-1. 창농지원은 귀농 만족도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 4-2. 주택지원은 귀농 만족도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 4-3. 대출지원은 귀농 만족도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5. 농촌흡입요인과 귀농만족도 사이에 가족지지도는 조절효과가 있을 것이다.

가설6. 귀농준비정도와 귀농만족도 사이에 가족지지도는 조절효과가 있을 것이다.

가설7. 귀농지 주거환경과 귀농만족도 사이에 가족지지도는 조절효과가 있을 것이다.

가설8. 귀농지원정책과 귀농만족도 사이에 가족지지도의 조절효과가 있을 것이다.

IV. 연구방법

4.1 자료 수집

본 연구는 선행연구 등을 토대로 한 문헌연구와 귀농 귀촌인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로 진행하였다. 이를 위해 선행연구 및 문헌 연구를 통해 본 연구에 적용할 연구모형과 연구가설을 설정하였다. 독립변수를 농촌흡입요인, 귀농 전 경력 특성, 개인 심리적 특성, 귀농 준비정도, 귀농지 주거환경, 귀농지 갈등으로, 종속변수는 귀농만족도로 설정하였고 조절변수로 가족지지도를 다루었다. 설문지는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만들었으며, 설문 문항은 리커트 5점 형식의 척도식 이용하였다. 설문지는 2017년 6월25일부터 2017년 7월 30일까지 총 45일간 300부를 배포하여 최종적으로 237개의 유효한 설문지를 확보하였다.

4.2 자료 분석 방법

본 연구는 237부의 자료를 분석하였고, SPSS 통계 프로그램 (Ver. 21.0)을 이용하여 다음과 같이 분석하였다.

첫째, 연구대상의 인구통계학적 특성을 파악하기 위해 빈도 분석(Frequency Analysis)을 실시하여 빈도와 백분율을 산출하였다. 둘째, 측정도구의 타당성과 신뢰성 검증에서는 요인분석(Factor Analysis)과 신뢰성 분석(Reliability Analysis)을 실시하였다. 요인분석에서는 Varimax 직각회전방식을 이용한 주성분 분석(Principal Component Analysis)을 하였으며, 신뢰성 분석에서는 Cronbach's α 계수를 산출하여 신뢰성을 검증하였다.

셋째, 연구가설의 검증과정에서는 농촌흡입요인과 귀농준비정도, 귀농지 주거환경, 귀농지원정책이 귀농만족도에 미치는 영향과 가족지지의 조절효과를 분석하기 위해 위계적 회귀분석(Hierarchical Regression Analysis)을 실시하였다.

4.3 변수별 설문구성

<표 1> 변수별 설문구성

변수 구분	하위변인	문항번호	문항수	총문항수
농촌흡입요인	경제적요인	1-1,2,3,4	4	9
	환경적요인	1-5,6,7	3	
	심리적요인	1-8,9	2	
귀농준비정도	작목준비	3-1,2,3,4	4	11
	자가준비	3-5,6,7,8	4	
	임대차용	3-9,10,11,	3	
귀농지주거환경	편리성	5-1,2,3,4,5	5	11
	안전성	5-6,7,8,9	4	
	쾌적성	5-10,11	2	

귀농지원정책	창농지원	5-1,2,3,4,5,6	5	9
	주택지원	5-,8,9	2	
	대출지원	5-10,11	2	
귀농만족도		7-1,2,3,4,5	5	5
가족지지도		8-1,2,3,4	4	4
인구통계학적 특성		9-1,2,3,4,5,6,7,8,9,10,11,12,13,14,15	15	15

V. 실증분석 및 결과

5.1 연구대상의 특성

연구대상의 인구통계학적 특성인 성별, 연령, 결혼여부, 학력, 귀농전 직업을 분석한 결과는 <표 1>과 같다. 성별에서는 남성이 149명(62.9%), 여성이 88명(37.1%)로서 여성보다 남성이 많았고, 연령은 40세 미만 34명(14.3%), 40-49세 86명(36.3%), 50-59세 72명(30.4%), 60세 이상 45명(19.0%)으로 40대와 50대가 높게 나타났다.

결혼여부에서는 미혼이 27명(11.4%), 기혼이 210명(88.6%)로 기혼의 비중이 더 높았으며, 학력은 고등학교 졸업이하 65명(27.4%), 전문대학교 재학 및 졸업 48명(20.3%), 4년제 대학교 재학 및 졸업 97명(40.9%), 1대학원 재학이상 27명(11.4%)의 결과를 보였다. 귀농전 직업은 회사원 78명(32.9%), 전문직 55명(23.2%), 자영업 57명(31.4%), 권한관리(내부사용자제정 및 권한관리) 21명(7.5%), 프로그램(개발) 보안 28명(24.1%), 공무원 및 기타 47명(19.8%)로 회사원이 가장 많았다.

<표 1> 연구대상의 인구통계학적 특성

구분	빈도(명)	백분율(%)	
성별	남성	149	62.9
	여성	88	37.1
연령	40세 미만	34	14.3
	40-49세	86	36.3
	50-59세	72	30.4
	60세 이상	45	19.0
결혼여부	미혼	27	11.4
	기혼	210	88.6
학력	고등학교 졸업이하	65	27.4
	전문대학 재학 및 졸업	48	20.3
	4년제 대학교 재학 및 졸업	97	40.9
	대학원 재학이상	27	11.4
귀농전 직업	회사원	78	32.9
	전문직	55	23.2
	자영업	57	24.1
	공무원 및 기타	47	19.8
합계	237	100.0	

5.2 타당성 및 신뢰성 분석

본 연구는 요인분석을 통해 측정도구의 타당성을 검증하였고, 요인분석에서는 고유치 1.0이상, 요인부하량 0.5이상인 요인을 추출하였다. 신뢰성 분석에서는 Cronbach's α 계수를 산출하였으며, 0.6이상을 기준으로 신뢰성을 판단하였다.

5.2.1 독립변수의 타당성 및 신뢰성 분석

본 연구의 독립변수인 농촌흡인요인과 귀농준비정도, 귀농지 주거환경 및 귀농지원정책에 대한 요인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5.2.1.1 농촌흡인요인

농촌흡인요인에 관한 10문항을 요인분석한 결과에서는 고유치 1.0이상인 3개의 요인이 도출되었고, 요인 1은 경제적 요인, 요인 2는 환경적 요인, 요인 3은 심리적 요인이라 명명하였다<표 2>. 이들 요인의 총 분산은 74.492%였고, KMO 값이 0.814, $p<.001$ 이었으며, 요인값 0.5 이하로 나타난 심리적 요인에 관한 1문항을 제거하였다. 신뢰성 분석에 의한 Cronbach's α 계수는 경제적 요인 .853, 환경적 요인 .857, 심리적 요인 .676으로서 신뢰할 수 있는 수준이었다.

<표 2> 농촌흡인요인의 요인분석 및 신뢰성 분석 결과

요인	문항	요인부하량		
		1	2	3
경제적 요인	농업전망이 밝아 보아서 귀농했다	.833	.165	.209
	농촌에서의 수입이 더 많을 것 같아서 귀농했다	.825	-.033	.072
	농촌의 삶은 경제적으로 안정적일 것 같아서 귀농했다	.787	.044	.292
	창농은 투자의 우려가 없어서 귀농했다	.729	.147	.372
환경적 요인	쾌적한 자연 환경에서 살고 싶어서 귀농했다	.001	.890	.086
	농촌생활이 건강에 이득을 것 같아서 귀농했다	.130	.889	.119
	상대적인 삶을 추구하고 싶어서 귀농했다	.092	.785	.361
심리적 요인	원주민들이 도시민보다 인간적일 것 같아 귀농했다	.291	.175	.813
	농촌의 삶에서 안정감을 느낄 수 있을 것 같아 귀농했다	.337	.297	.707
Eigenvalue		2.750	2.368	1.586
누적 변량 %		30.555	56.867	74.492
Cronbach's α		.853	.857	.676

5.2.1.2 귀농준비정도

귀농준비정도에 관한 12문항을 요인분석한 결과, <표 2>과 같이 3개의 요인이 도출되었고, 요인 1은 작목준비, 요인 2는 자가준비, 요인 3은 임대차용이라 명명하였다. 이들 요인의 총 분산은 62.919%였고, KMO 값이 0.730, $p<.001$ 이었으며, 요인값 0.5 이하인 임대차용에 관한 1문항을 제거하였다. 신뢰성 분석에 의한 Cronbach's α 계수는 작목준비 .906, 자가준비 .866, 임대차용 .795로서 높은 신뢰수준을 보였다.

<표 3> 귀농준비정도의 요인분석 및 신뢰성 분석 결과

요인	문항	요인부하량		
		1	2	3
작목 준비	나는 재배할 작목을 전문가에게 추천받아 선정했다	.891	.055	.003
	나는 수익성이 좋은 작목으로 선정했다	.867	.080	.051
	나는 미리 생각해둔 재배작물이 있었다	.851	-.016	.042
	나는 재배할 작목에 대해 공부했다	.734	.202	.238
자가 준비	나는 귀농하기 전에 농지를 매입했다	.157	.783	.079
	나는 스스로 귀농 자금을 준비했다	.053	.724	-.194
	나는 귀농자금이 충분했다	-.073	.706	.028
	나는 귀농하기 전에 주택을 매입했다	.137	.699	-.065
임대 차용	나는 지인으로부터 귀농자금을 차용했다	.061	-.023	.819
	나는 가족으로부터 귀농 자금을 지원 받았다	.167	-.016	.773
	나는 귀농하기 전에 주택을 임대했다	.005	-.073	.685
Eigenvalue		2.891	2.182	1.847
누적 변량 %		26.285	46.124	62.919
Cronbach's α		.906	.866	.795

5.2.1.3 귀농지 주거환경

귀농지 주거환경에 관한 12문항을 요인분석한 결과, <표 4>와 같이 3개의 요인이 도출되었고, 요인 1은 편리성, 요인 2는 안전성, 요인 3은 쾌적성이라 명명하였다. 이들 요인의 총 분산은 75.432%였고, KMO 값이 0.850, $p < .001$ 이었으며, 요인 값 0.5이하로 나타난 쾌적성 1문항을 제거하였다. 신뢰성 분석에 의한 Cronbach's α 계수는 편리성 .865, 안전성 .707, 쾌적성 .655로서 수용할만한 신뢰수준이었다.

<표 4> 귀농지 주거환경의 요인분석 및 신뢰성 분석 결과

요인	문항	요인부하량		
		1	2	3
편리성	나는 자녀의 통학이 가까운 곳을 선택했다.	.830	.097	.079
	나는 행정관청에서 가까운 곳을 선택했다	.822	.285	.202
	나는 시장(대형마트, 전통시장)에서 가까운 곳을 선택했다	.801	.351	.126
	나는 도로와 교통이 편리한 지역을 선택했다.	.737	.270	.340
	나는 병원시설이 가까운 곳을 선택했다	.733	.330	.281
안전성	나는 동절기에 눈이 많이 오는 지역을 회피하였다	.258	.877	.120
	나는 하절기 침수지역을 회피하였다	.201	.826	.278
	나는 야생동물 출현 지역을 회피하였다	.359	.801	.113
	나는 귀농지역을 고려할 때 안전에 중점을 두었다	.224	.533	.406
쾌적성	나는 주거에 쾌적한 곳을 선택했다	.170	.213	.872
	나는 주거 주택을 선택할 때에 향을 고려하였다	.244	.175	.838
Eigenvalue		3.461	2.848	1.988
누적 변량 %		31.464	57.357	75.432
Cronbach's α		.865	.707	.655

5.2.1.4 귀농지원정책

귀농지원정책에 관한 12문항을 요인분석한 결과에서는 <표 5>와 같이 3개의 요인이 도출되었고, 요인 1은 창농지원, 요인 2는 주택지원, 요인 3은 대출지원이라 명명하였다. 이들 요인의 총 분산은 79.291%였고, KMO 값이 0.887, $p < .001$ 이었으며, 요인값 0.5 이하인 주택지원 1문항과 대출지원 1문항을

제거하였다. 신뢰성 분석에 의한 Cronbach's α 계수는 창농지원 .912, 주택지원 .882, 대출지원 .871로서 신뢰수준이 높게 나타났다.

<표 5> 귀농지원정책의 요인분석 및 신뢰성 분석 결과

요인	문항	요인부하량		
		1	2	3
창농 지원	귀농 시 이론교육은 귀농 후 농작에 도움이 된다.	.844	.115	.182
	정부나 지자체의 창농 지원 정책은 도움이 된다	.841	-.013	.285
	귀농 시 실무교육은 귀농 후 농작에 도움이 된다	.829	.176	.155
	정부의 창농자금 지원제도는 귀농 결정에 도움이 된다	.789	.251	.180
	정부가 지원하는 창농 자금지원 정책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생각이다	.774	.300	-.013
	수리비 지원 정책은 귀농에 도움이 된다	.628	.506	.266
주택 지원	주택 임대 구입 자금 지원 정책은 귀농에 도움이 된다	.192	.903	.157
	주택 일정기간 임대 정책은 귀농에 도움이 된다	.181	.899	.172
대출 지원	정부에서 도와주고 있는 자금지원의 시기는 적당하다	.148	.194	.907
	정부에서 도와주고 있는 자금지원의 규모는 적당하다	.264	.163	.887
Eigenvalue		3.883	2.142	1.904
누적 변량 %		38.829	60.248	79.291
Cronbach's α		.912	.882	.871

5.2.2 조절변수의 타당성 및 신뢰성 분석

본 연구의 조절변수인 가족지지에 관한 4문항을 요인분석한 결과, <표 6>과 같이 1개의 요인이 도출되었고, 귀농에 대한 가족의 지지와 도움에 관한 문항으로 구성되었다. 요인의 총 분산은 60.738%였고, KMO 값이 0.704, $p < .001$ 이었으며, 모든 문항의 요인값이 0.5이상으로 나타났다. 신뢰성 분석에 의한 Cronbach's α 계수는 .780로서 신뢰할만한 수준이었다.

<표 6> 가족지지의 요인분석 및 신뢰성 분석 결과

요인	문항	요인부하량
		1
가족 지지	나의 가족들은 나의 귀농결정을 존중했다	.823
	배우자가 귀농을 지지했다	.797
	나의 가족은 귀농 후 내가 일하는데 많은 도움을 준다	.789
	자녀가 귀농을 지지했다	.703
Eigenvalue		2.430
누적 변량 %		60.738
Cronbach's α		.780

5.2.3 종속변수의 타당성 및 신뢰성 분석

본 연구의 종속변수인 귀농만족도에 관한 5문항을 요인분석한 결과, <표 7>과 같이 1개의 요인이 도출되었고, 귀농에 대한 만족도와 관련된 문항으로 구성되었다. 요인의 총 분산은 67.058%였고, KMO 값이 0.767, $p < .001$ 이었으며, 모든 문항의 요인값이 0.5이상으로 나타났다. 신뢰성 분석에 의한 Cronbach's α 계수는 .872로서 신뢰할만한 수준이었다.

<표 7> 귀농만족도의 요인분석 및 신뢰성 분석 결과

요인	문항	요인부하량
		1
귀농 만족도	나는 귀농 후에 경제적 생활이 좋아졌다	.896
	나는 귀농 후 나의 소득에 만족한다	.895
	귀농 후 나의 삶이 행복해졌다	.818
	나는 귀농을 잘했다고 생각한다	.769
	나는 귀농 전보다 소득이 나아졌다	.698
Eigenvalue		3.353
누적 변량 %		67.058
Cronbach's α		.872

5.3 상관관계분석

본 연구에서 측정변수 간 상관관계를 분석한 결과는 <표 8>

<표 8> 상관관계분석결과

요인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경제적요인	1														
2.환경적요인	.244***	1													
3.심리적요인	.615***	.486***	1												
4.작목준비	.539***	.299***	.418***	1											
5.자기준비	.219**	.344***	.326***	.196**	1										
6.임대차용	.309***	-.107	.171**	.193**	-.077	1									
7.편리성	.313***	.235***	.336***	.242***	.447***	.178	1								
8.안전성	.322***	.259***	.309***	.254***	.430***	-.011	.628***	1							
9.쾌적성	.154*	.368***	.298***	.204**	.364***	-.139*	.493***	.500***	1						
10.창농지원	.433***	.369***	.413***	.390***	.316***	.051	.259***	.306***	.263***	1					
11.주택지원	.071	.191**	.132*	.054	.132*	.072	.050	.106	.190**	.575***	1				
12.대출지원	.092	.218**	.152*	.038	.152*	.050	.132*	.078	.143*	.428***	.459***	1			
13.가족지지	.225**	.253***	.276***	.202**	.322***	.043	.349***	.190**	.329***	.227***	.120	.081	1		
14.귀농만족도	.243***	.110	.143*	.203**	.079	.134*	.083	.086	.016	.217**	.124	.128	.280***	1	

* $p < .05$, ** $p < .01$, *** $p < .001$

5.4 가설검증

본 연구는 귀농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과 가족지지의 조절효과를 분석하기 위해 인구통계학적 특성을 통제변인으로 하는 위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통제변수인 인구통계학적 특성은 회귀분석 결과의 타당성을 높이기 위해 투입하였으며, 독립변수 간의 다중공선성(Multicollinearity) 문제는 분산 팽창 계수(VIF, Variance Inflation Factor)를 통해 파악하였다. VIF 값의 경우 10이상이면 높은 다중공선성의 문제가 발생하므로 이를 고려하여 다중공선성을 확인하였다.

5.4.1 농촌흡입요인이 귀농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농촌흡입요인이 귀농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기 위해 인구통계학적 특성을 통제변수로 하고 농촌흡입요인을 독립

변수로 하는 위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표 9>와 같다. 인구통계학적 특성을 투입한 1단계 회귀모형은 $F=3.548$, $p < .001$ 에서 유의하였고, 전체 설명력이 9.9%였으며, VIF 값이 1.060-1.795로서 다중공선성의 문제는 발생하지 않았다. 귀농만족도에 대해서는 연령($\beta = -.190$, $t = -2.411$, $p < .05$)이 부(-)의 영향을 미치고 있어 연령이 높을수록 귀농만족도가 낮아지고 있었다. 또한 귀농전 직업1($\beta = .283$, $t = 3.306$, $p < .01$), 귀농전 직업2($\beta = .217$, $t = 2.621$, $p < .01$), 귀농전 직업3($\beta = .223$, $t = 2.647$, $p < .01$)이 귀농만족도에 정(+)의 영향을 미침으로써 귀농전 직업이 회사원, 전문직, 자영업일 경우 귀농만족도가 높게 나타났다.

농촌흡입요인을 추가 투입한 2단계 회귀모형은 $F=3.716$, $p < .001$ 에서 유의하였고, 전체 설명력이 14.2%로서 1단계보다 4.3% 증가하였으며, VIF 값이 1.120-2.067로서 다중공선성의 문제는 나타나지 않았다. 인구통계학적 특성에서는 연령(β

=-.196, $t=-2.512$, $p<.05$)이 귀농만족도에 부(-)의 영향을 미치고 있었고, 결혼여부($\beta=.159$, $t=2.152$, $p<.05$)와 귀농전 직업1($\beta=.239$, $t=2.795$, $p<.01$), 귀농전 직업2($\beta=.193$, $t=2.363$, $p<.05$), 귀농전 직업3($\beta=.191$, $t=2.271$, $p<.05$)이 귀농만족도에 정(+의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농촌흡입요인 중에서는 환경적 요인과 심리적 요인은 귀농만족도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으나, 경제적 요인($\beta=.229$, $t=2.816$, $p<.01$)은 귀농만족도에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귀농동기로서 농촌의 삶이 경제적으로 안정적이고 퇴직의 우려가 없으며, 수입이 더 증가할 것 같아서 귀농을 결정할수록 귀농만족도가 높아진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귀농을 하는데 있어 환경적이거나 심리적 요인은 영향을 미치지 않았는데, 이는 귀농동기에 있어 경제적 요인의 중요성이 더 크기 때문인 것으로 사료된다.

결론적으로, 농촌흡입요인이 귀농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에서는 환경적 요인과 심리적 요인을 제외한 경제적 요인이 귀농만족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침으로써 본 연구의 가설 1-1은 채택되었고, 1-2, 1-3은 기각되었다.

<표 9> 농촌흡입요인이 귀농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독립변수		종속변수					
		귀농만족도					
		1단계			2단계		
		β	t	P	β	t	P
인구통계학적 특성	성별a)	-.105	-1.546	.123	-.096	-1.449	.149
	연령	-.190	-2.411*	.017	-.196	-2.512*	.013
	결혼여부b)	.143	1.928	.055	.159	2.152*	.032
	학력	.079	1.210	.227	.051	.775	.439
	귀농전 직업1c)	.283	3.306**	.001	.239	2.795**	.006
	귀농전 직업2d)	.217	2.621**	.009	.193	2.363*	.019
	귀농전 직업3e)	.223	2.647**	.009	.191	2.271*	.024
농촌흡입요인	경제적요인				.229	2.816**	.005
	환경적요인				.065	.886	.377
	심리적요인				-.063	-.708	.480
F		3.548***			3.716***		
R ²		.099			.142		
ΔR^2					.043		

* $p<.05$, ** $p<.01$, *** $p<.001$

a)성별(남성=0, 여성=1), b)결혼여부(미혼=0, 기혼=1), c)귀농전 직업1(회사원=1, 나머지=0), d)귀농전 직업2(전문직=1, 나머지=0), e)귀농전 직업3(자영업=1, 나머지=0)

5.4.2 귀농준비정도가 귀농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귀농준비정도가 귀농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기 위해 인구통계학적 특성을 통제변수로 하고 귀농준비정도를 독립변수로 하는 위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표 10>과 같다. 인구통계학적 특성을 투입한 1단계 회귀모형은 $F=3.548$, $p<.001$ 에서 유의하였고, 전체 설명력이 9.9%였으며, VIF 값이 1.060-1.795로서 다중공선성의 문제는 발생하지 않았다. 귀농준비정도를 추가 투입한 2단계 회귀모형은 $F=3.329$, $p<.001$ 에서 유의하였고, 전체 설명력이 12.9%로서 1단계보다 3.0% 증가하였으며, VIF 값이 1.073-1.934로서 다중공선성의 문제는

나타나지 않았다. 인구통계학적 특성에서는 연령($\beta=-.186$, $t=-2.271$, $p<.05$)이 귀농만족도에 부(-)의 영향을 미치고 있었고, 결혼여부($\beta=.152$, $t=2.060$, $p<.05$)와 귀농전 직업1($\beta=.246$, $t=2.838$, $p<.01$), 귀농전 직업2($\beta=.180$, $t=2.166$, $p<.05$), 귀농전 직업3($\beta=.189$, $t=2.215$, $p<.05$)이 귀농만족도에 정(+의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귀농준비정도에서는 자가준비와 임대차용은 귀농만족도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으나, 작목준비($\beta=.157$, $t=2.331$, $p<.05$)는 귀농만족도에 정(+의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즉, 귀농 시 미리 생각해둔 재배작물이 있었거나 전문가의 추천 혹은 수익성이 좋은 작목으로 선정할수록 귀농만족도가 높아진다고 할 수 있다. 이와 같이 자가준비와 임대차용을 제외한 작목준비가 귀농만족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남으로써 본 연구의 가설 2-1은 채택되었고, 2-2, 2-3은 기각되었다.

<표 10> 귀농준비정도가 귀농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독립변수		종속변수					
		귀농만족도					
		1단계			2단계		
		β	t	P	β	t	P
인구통계학적 특성	성별a)	-.105	-1.546	.123	-.073	-1.093	.276
	연령	-.190	-2.411*	.017	-.186	-2.271*	.024
	결혼여부b)	.143	1.928	.055	.152	2.060*	.041
	학력	.079	1.210	.227	.069	1.073	.284
	귀농전 직업1c)	.283	3.306**	.001	.246	2.838**	.005
	귀농전 직업2d)	.217	2.621**	.009	.180	2.166*	.031
	귀농전 직업3e)	.223	2.647**	.009	.189	2.215*	.028
귀농준비정도	작목준비				.157	2.331*	.021
	자가준비				.040	.568	.570
	임대차용				.068	1.027	.305
F		3.548***			3.329***		
R ²		.099			.129		
ΔR^2					.030		

* $p<.05$, ** $p<.01$, *** $p<.001$

a)성별(남성=0, 여성=1), b)결혼여부(미혼=0, 기혼=1), c)귀농전 직업1(회사원=1, 나머지=0), d)귀농전 직업2(전문직=1, 나머지=0), e)귀농전 직업3(자영업=1, 나머지=0)

5.4.3 귀농지 주거환경이 귀농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귀농지 주거환경이 귀농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기 위해 인구통계학적 특성을 통제변수로 하고 귀농지 주거환경을 독립변수로 하는 위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표 11>과 같다. 인구통계학적 특성을 투입한 1단계 회귀모형은 $F=3.548$, $p<.001$ 에서 유의하였고, 전체 설명력이 9.9%였으며, VIF 값이 1.060-1.795로서 다중공선성의 문제는 발생하지 않았다. 귀농지 주거환경을 추가 투입한 2단계 회귀모형은 $F=2.857$, $p<.01$ 에서 유의하였고, 전체 설명력이 11.4%로서 1단계보다 1.5% 증가하였으며, VIF 값이 1.102-1.860로서 다중공선성의 문제는 나타나지 않았다. 인구통계학적 특성에서는 연령($\beta=-.182$, $t=-2.274$, $p<.05$)이 귀농만족도에 부(-)의 영향을

미치고 있었고, 귀농전 직업1($\beta=.291, t=3.350, p<.01$), 귀농전 직업2($\beta=.229, t=2.708, p<.01$), 귀농전 직업3($\beta=.221, t=2.586, p<.05$)이 귀농만족도에 정(+)의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귀농지 주거환경에서는 편리성과 쾌적성은 귀농만족도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으나, 안전성($\beta=.178, t=2.029, p<.05$)은 귀농만족도에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귀농 시 안전에 중점을 두거나 야생동물 출현지역, 동절기 폭설지역 및 하절기 침수지역을 회피할수록 귀농만족도가 높아진다고 할 수 있다. 이와 같이 편리성과 쾌적성을 제외한 안전성이 귀농만족도에 영향을 미침으로써 본 연구의 가설 3-2는 채택되었고, 3-1, 3-3은 기각되었다.

<표 11> 귀농지 주거환경이 귀농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독립변수	종속변수	귀농만족도					
		1단계			2단계		
		β	t	P	β	t	P
인구 통계학적 특성	성별a)	-.105	-1.546	.123	-.103	-1.492	.137
	연령	-.190	-2.411*	.017	-.182	-2.274*	.024
	결혼여부b)	.143	1.928	.055	.110	1.477	.141
	학력	.079	1.210	.227	.107	1.605	.110
	귀농전 직업1c)	.283	3.306**	.001	.291	3.350**	.001
	귀농전 직업2d)	.217	2.621**	.009	.229	2.708**	.007
	귀농전 직업3e)	.223	2.647**	.009	.221	2.586*	.010
귀농지 주거 환경	편리성				.040	.469	.639
	안전성				.178	2.029*	.044
	쾌적성				.081	1.019	.309
F		3.548***			2.857**		
R ²		.099			.114		
ΔR^2					.015		

* $p<.05$, ** $p<.01$, *** $p<.001$

a)성별(남성=0, 여성=1), b)결혼여부(미혼=0, 기혼=1), c)귀농전 직업1(회사원=1, 나머지=0), d)귀농전 직업2(전문직=1, 나머지=0), e)귀농전 직업3(자영업=1, 나머지=0)

5.4.4 귀농지원정책이 귀농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귀농지원정책이 귀농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기 위해 인구통계학적 특성을 통제변수로 하고 귀농지원정책을 독립변수로 하는 위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표 12>와 같다. 인구통계학적 특성을 투입한 1단계 회귀모형은 $F=3.548, p<.001$ 에서 유의하였고, 전체 설명력이 9.9%였으며, VIF 값이 1.060-1.795로서 다중공선성의 문제는 발생하지 않았다. 귀농지원정책을 추가 투입한 2단계 회귀모형은 $F=3.474, p<.001$ 에서 유의하였고, 전체 설명력이 13.4%로서 1단계보다 3.5% 증가하였으며, VIF 값이 1.114-1.904로서 다중공선성의 문제는 나타나지 않았다. 인구통계학적 특성에서는 연령($\beta=-.196, t=-2.512, p<.05$)이 귀농만족도에 부(-)의 영향을 미치고 있었고, 귀농전 직업1($\beta=.239, t=2.795, p<.01$), 귀농전 직업2($\beta=.193, t=2.363, p<.05$), 귀농전 직업3($\beta=.191, t=2.271, p<.05$)이 귀농만족도에 정(+)의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귀농지원정책의 주택지원과 대출지원은 귀농만족도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으나, 창농지원($\beta=.229, t=2.816, p<.01$)은 귀농만족도에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귀농 시 정부나 지자체의 창농지원정책이 도움이 되고 적극적으로 활용할수록 귀농만족도가 높아진다고 할 수 있다. 이와 같이 주택지원과 대출지원을 제외한 창농지원이 귀농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남으로써 본 연구의 가설 4-1은 채택되었고, 4-2, 4-3은 기각되었다.

<표 12> 귀농지원정책이 귀농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독립변수	종속변수	귀농만족도					
		1단계			2단계		
		β	t	P	β	t	P
인구 통계학적 특성	성별a)	-.105	-1.546	.123	-.097	-1.423	.156
	연령	-.190	-2.411*	.017	-.191	-2.453*	.015
	결혼여부b)	.143	1.928	.055	.144	1.963	.051
	학력	.079	1.210	.227	.052	.804	.422
	귀농전 직업1c)	.283	3.306**	.001	.268	3.156**	.002
	귀농전 직업2d)	.217	2.621**	.009	.197	2.393*	.018
귀농지원 정책	창농지원				.189	2.377*	.018
	주택지원				-.025	-.313	.755
	대출지원				.053	.718	.473
F		3.548***			3.474***		
R ²		.099			.134		
ΔR^2					.035		

* $p<.05$, ** $p<.01$, *** $p<.001$

a)성별(남성=0, 여성=1), b)결혼여부(미혼=0, 기혼=1), c)귀농전 직업1(회사원=1, 나머지=0), d)귀농전 직업2(전문직=1, 나머지=0), e)귀농전 직업3(자영업=1, 나머지=0)

5.4.5 농촌흡입요인과 귀농만족도 간 가족지지의 조절효과

본 연구는 농촌흡입요인과 귀농만족도 간 가족지지의 조절효과를 분석하기 위해 통제변수인 인구통계학적 특성과 함께 농촌흡입요인, 가족지지, 상호작용항을 투입하는 위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다수의 독립변수와 상호작용항의 투입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다중공선성의 문제는 평균 중심화(Mean Centering) 방법을 사용하여 해결하였으며, 편차점수를 이용하여 상호작용항을 구한 후 분석에 투입하였다. 그 결과는 <표 13>와 같다. 통제변수인 인구통계학적 특성과 함께 독립변수인 농촌흡입요인, 조절변수인 가족지지를 투입한 1단계 회귀모형은 $F=4.547, p<.001$ 에서 유의하였고, 전체 설명력이 18.6%였으며, VIF 값이 1.124-2.095로서 다중공선성의 문제는 발생하지 않았다. 상호작용항을 추가 투입한 2단계 회귀모형은 $F=4.403, p<.001$ 에서 유의하였고, 전체 설명력이 22.2%로서 1단계보다 3.6% 증가하였으며, VIF 값이 1.124-2.509로서 다중공선성의 문제는 나타나지 않았다. 농촌흡입요인의 경제적 요인($\beta=.243, t=3.023, p<.01$)과 가족지지($\beta=.229, t=3.370, p<.01$)가 귀농만족도에 정(+)의 영향을 미치고 있었고, 경제적 요인과 가족지지의 상호작용항($\beta=.178, t=2.321, p<.05$)이 귀농만족도에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가족지지가 높을수록 경제적 요인이 귀농만족도에 미치

는 영향이 더 높아진다고 할 수 있다. 이와 같이 환경적 요인과 심리적 요인을 제외한 경제적 요인과 귀농만족도 간 가족지지의 조절효과가 나타남으로써 본 연구의 가설 5-1은 채택되었고, 5-2, 5-3은 기각되었다.

<표 13> 농촌흡입요인과 귀농만족도 간 가족지지의 조절효과

독립변수		종속변수		귀농만족도					
				1단계			2단계		
		β	<i>t</i>	<i>P</i>	β	<i>t</i>	<i>P</i>		
인구통계학적 특성	성별a)	-.091	-1.376	.170	-.070	-1.062	.290		
	연령	-.207	-2.733**	.007	-.211	-2.835**	.005		
	결혼여부b)	.113	1.534	.126	.103	1.404	.162		
	학력	.034	.530	.596	.034	.530	.597		
	귀농전 직업1c)	.209	2.472*	.014	.168	1.995*	.047		
	귀농전 직업2d)	.150	1.838	.067	.141	1.746	.082		
	귀농전 직업3e)	.190	2.299*	.022	.169	2.065*	.040		
농촌흡입요인	경제적요인	.216	2.685**	.008	.243	3.032**	.003		
	환경적요인	.068	.933	.352	.055	.764	.446		
	심리적요인	-.107	-1.213	.226	-.129	-1.470	.143		
	가족지지	.209	3.100**	.002	.229	3.370**	.001		
경제적요인*가족지지					.178	2.321*	.021		
환경적요인*가족지지					.107	1.323	.187		
심리적요인*가족지지					-.079	-.835	.404		
F		4.547***			4.403***				
R ²		.186			.222				
ΔR ²					.036				

p*<.05, *p*<.01, ****p*<.001

a)성별(남성=0, 여성=1), b)결혼여부(미혼=0, 기혼=1), c)귀농전 직업1(회사원=1, 나머지=0), d)귀농전 직업2(전문직=1, 나머지=0), e)귀농전 직업3(자영업=1, 나머지=0)

5.4.6 귀농준비정도와 귀농만족도 간 가족지지의 조절효과

본 연구는 귀농준비정도와 귀농만족도 간 가족지지의 조절효과를 분석하기 위해 통제변수인 인구통계학적 특성과 함께 귀농준비정도, 가족지지, 상호작용항을 투입하는 위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하였고, 그 결과는 <표 14>와 같다. 통제변수인 인구통계학적 특성과 함께 독립변수인 귀농준비정도, 조절변수인 가족지지를 투입한 1단계 회귀모형은 $F=4.124$, $p<.001$ 에서 유의하였고, 전체 설명력이 17.1%였으며, VIF 값이 1.082-1.948로서 다중공선성의 문제는 발생하지 않았다. 상호작용항을 추가 투입한 2단계 회귀모형은 $F=3.846$, $p<.001$ 에서 유의하였고, 전체 설명력이 19.9%로서 1단계보다 2.8% 증가하였으며, VIF 값이 1.093-1.995로서 다중공선성의 문제는 나타나지 않았다. 귀농준비정도의 작목준비($\beta=.162$, $t=2.390$, $p<.05$)와 가족지지($\beta=.207$, $t=2.743$, $p<.01$)가 귀농만족도에 정(+)의 영향을 미치고 있었고, 자가준비와 가족지지의 상호작용항($\beta=.140$, $t=2.102$, $p<.05$)이 귀농만족도에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가족지지가 높을수록 자가준비가 귀농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이 더 높아진다고 할 수 있다.

이와 같이 작목준비와 임대차용을 제외한 자가준비와 귀농만족도 간 가족지지의 조절효과가 나타남으로써 본 연구의 가설 6-2는 채택되었고, 6-1, 6-3은 기각되었다.

<표 14> 귀농준비정도와 귀농만족도 간 가족지지의 조절효과

독립변수		종속변수		귀농만족도					
				1단계			2단계		
		β	<i>t</i>	<i>P</i>	β	<i>t</i>	<i>P</i>		
인구통계학적 특성	성별a)	-.070	-1.044	.298	-.071	-1.073	.284		
	연령	-.187	-2.349*	.020	-.181	-2.261*	.025		
	결혼여부b)	.102	1.373	.171	.088	1.181	.239		
	학력	.053	.827	.409	.059	.928	.354		
	귀농전 직업1c)	.221	2.576*	.011	.214	2.490*	.014		
	귀농전 직업2d)	.140	1.698	.091	.146	1.767	.079		
	귀농전 직업3e)	.190	2.256*	.025	.191	2.277*	.024		
귀농준비정도	작목준비	.133	1.988*	.048	.162	2.390*	.018		
	자가준비	.002	.032	.974	.036	.498	.619		
	임대차용	.056	.849	.397	.021	.311	.756		
가족지지		.212	3.095**	.002	.207	2.743**	.007		
작목준비*가족지지					.046	.702	.484		
자가준비*가족지지					.140	2.102*	.037		
임대차용*가족지지					.116	1.691	.092		
F		4.124***			3.846***				
R ²		.171			.199				
ΔR ²					.028				

p*<.05, *p*<.01, ****p*<.001

a)성별(남성=0, 여성=1), b)결혼여부(미혼=0, 기혼=1), c)귀농전 직업1(회사원=1, 나머지=0), d)귀농전 직업2(전문직=1, 나머지=0), e)귀농전 직업3(자영업=1, 나머지=0)

5.4.7 귀농지 주거환경과 귀농만족도 간 가족지지의 조절효과

본 연구는 귀농지 주거환경과 귀농만족도 간 가족지지의 조절효과를 분석하기 위해 통제변수인 인구통계학적 특성과 함께 귀농지 주거환경, 가족지지, 상호작용항을 투입하는 위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하였고, 그 결과는 <표 15>과 같다. 통제변수인 인구통계학적 특성과 함께 독립변수인 귀농지 주거환경, 조절변수인 가족지지를 투입한 1단계 회귀모형은 $F=4.262$, $p<.001$ 에서 유의하였고, 전체 설명력이 17.6%였으며, VIF 값이 1.118-1.928로서 다중공선성의 문제는 발생하지 않았다. 상호작용항을 추가 투입한 2단계 회귀모형은 $F=3.997$, $p<.001$ 에서 유의하였고, 전체 설명력이 20.6%로서 1단계보다 3.0% 증가하였으며, VIF 값이 1.138-2.348로서 다중공선성의 문제는 나타나지 않았다. 귀농지 주거환경의 안전성($\beta=.239$, $t=2.808$, $p<.01$)과 가족지지($\beta=.220$, $t=3.043$, $p<.01$)가 귀농만족도에 정(+)의 영향을 미치고 있었고, 편리성과 가족지지의 상호작용항($\beta=.195$, $t=2.200$, $p<.05$)이 귀농만족도에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가족지지가 높을수록 편리성이 귀농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이 더 높아진다고 할 수 있다. 이와 같이 안전성과 쾌적성을 제외한 편리성과 귀농만족도

간 가족지지의 조절효과가 나타남으로써 본 연구의 가설 7-1은 채택되었고, 7-2, 7-3은 기각되었다.

<표 15> 귀농지 주거환경과 귀농만족도 간 가족지지의 조절효과

독립변수		종속변수		귀농만족도					
				1단계			2단계		
		β	<i>t</i>	<i>P</i>	β	<i>t</i>	<i>P</i>		
인구통계학적 특성	성별a)	-.113	-1.673	.096	-.117	-1.740	.083		
	연령	-.189	-2.451*	.015	-.193	-2.485*	.014		
	결혼여부b)	.091	1.243	.215	.100	1.371	.172		
	학력	.091	1.400	.163	.094	1.458	.146		
	귀농전 직업1c)	.247	2.903**	.004	.263	3.115**	.002		
	귀농전 직업2d)	.162	1.944	.053	.152	1.827	.069		
	귀농전 직업3e)	.208	2.496*	.013	.197	2.386*	.018		
귀농지 주거환경	편리성	-.109	-1.279	.202	.118	1.374	.171		
	안전성	.206	2.423*	.016	.239	2.808**	.005		
	쾌적성	-.133	-1.704	.090	.114	1.438	.152		
가족지지		.277	4.006***	.000	.220	3.043**	.003		
편리성*가족지지					.195	2.200*	.029		
안전성*가족지지					.017	.180	.858		
쾌적성*가족지지					.117	1.546	.124		
F		4.262***			3.997***				
R ²		.176			.206				
ΔR ²					.030				

* $p < .05$, ** $p < .01$, *** $p < .001$

a)성별(남성=0, 여성=1), b)결혼여부(미혼=0, 기혼=1), c)귀농전 직업1(회사원=1, 나머지=0), d)귀농전 직업2(전문직=1, 나머지=0), e)귀농전 직업3(자영업=1, 나머지=0)

5.4.8 귀농지원정책과 귀농만족도 간 가족지지의 조절효과

본 연구는 귀농지원정책과 귀농만족도 간 가족지지의 조절효과를 분석하기 위해 통제변수인 인구통계학적 특성과 함께 귀농지원정책, 가족지지, 상호작용항을 투입하는 위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하였고, 그 결과는 <표 16>과 같다. 통제변수인 인구통계학적 특성과 함께 독립변수인 귀농지원정책, 조절변수인 가족지지를 투입한 1단계 회귀모형은 $F=4.225$, $p < .001$ 에서 유의하였고, 전체 설명력이 17.5%였으며, VIF 값이 1.112-1.885로서 다중공선성의 문제는 발생하지 않았다.

상호작용항을 추가 투입한 2단계 회귀모형은 $F=3.598$, $p < .001$ 에서 유의하였고, 전체 설명력이 18.9%로서 1단계보다 1.4% 증가하였으며, VIF 값이 1.114-2.087로서 다중공선성의 문제는 나타나지 않았다. 귀농지원정책의 창농지원($\beta=.175$, $t=2.186$, $p < .05$)과 가족지지($\beta=.202$, $t=2.950$, $p < .05$)가 귀농만족도에 정(+)의 영향을 미치고 있었고, 상호작용항 중에서는 귀농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나타나지 않았다.

즉, 귀농지원정책과 귀농만족도 간에는 가족지지의 조절효

과가 없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의 가설 8-1, 8-2, 8-3은 기각되었다.

<표 16> 귀농지원정책과 귀농만족도 간 가족지지의 조절효과

독립변수		종속변수		귀농만족도					
				1단계			2단계		
		β	<i>t</i>	<i>P</i>	β	<i>t</i>	<i>P</i>		
인구통계학적 특성	성별a)	-.093	-1.379	.169	-.087	-1.279	.202		
	연령	-.202	-2.654**	.009	-.217	-2.843**	.005		
	결혼여부b)	.093	1.258	.210	.111	1.492	.137		
	학력	.037	.565	.573	.036	.558	.578		
	귀농전 직업1c)	.235	2.790**	.006	.244	2.896**	.004		
	귀농전 직업2d)	.149	1.811	.072	.153	1.843	.067		
	귀농전 직업3e)	.205	2.484*	.014	.213	2.579*	.011		
귀농지원정책	창농지원	.154	1.935	.054	.175	2.186*	.030		
	주택지원	-.035	-.438	.662	-.052	-.649	.517		
	대출지원	.061	.842	.401	.054	.751	.454		
가족지지		.208	3.136**	.002	.202	2.950*	.004		
창농지원*가족지지					.158	1.785	.076		
주택지원*가족지지					.041	.459	.647		
대출지원*가족지지					.038	.500	.617		
F		4.225***			3.598***				
R ²		.175			.189				
ΔR ²					.014				

* $p < .05$, ** $p < .01$, *** $p < .001$

a)성별(남성=0, 여성=1), b)결혼여부(미혼=0, 기혼=1), c)귀농전 직업1(회사원=1, 나머지=0), d)귀농전 직업2(전문직=1, 나머지=0), e)귀농전 직업3(자영업=1, 나머지=0)

VI. 결론

6.1 연구결과 요약

본 연구에서 가설을 검증한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가설 1인 농촌흡입요인이 귀농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한 결과 환경적 요인과 심리적 요인을 제외한 경제적 요인이 귀농만족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침으로써 가설 1-1은 채택되었고, 1-2, 1-3은 기각되었다.

둘째, 가설 2인 귀농준비정도가 귀농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 자가준비와 임대차용을 제외한 작목준비가 귀농만족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남으로써 가설 2-1은 채택되었고, 2-2, 2-3은 기각되었다. 셋째, 가설 3인 귀농지 주거환경이 귀농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 편리성과 쾌적성을 제외한 안전성이 귀농만족도에 영향을 미침으로써 가설 3-2는 채택되었고, 3-1, 3-3은 기각되었다.

넷째, 가설 4인 귀농지원정책이 귀농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 주택지원과 대출지원을 제외한 창농지원이 귀농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남으로써 가설 4-1은 채택되었고, 4-2, 4-3은 기각되었다. 다섯째, 가설 5인 농촌흡

입요인과 귀농만족도 간 가족지지의 조절효과를 분석한 결과 환경적 요인과 심리적 요인을 제외한 경제적 요인과 귀농만족도 간 가족지지의 조절효과가 나타남으로써 가설 5-1은 채택되었고, 5-2, 5-3은 기각되었다.

여섯째, 가설 6인 귀농준비정도와 귀농만족도 간 가족지지의 조절효과를 분석한 결과 작목준비와 임대차용을 제외한 자가준비와 귀농만족도 간 가족지지의 조절효과가 나타남으로써 가설 6-2는 채택되었고, 6-1, 6-3은 기각되었다. 일곱째, 가설 7인 귀농지 주거환경과 귀농만족도 간 가족지지의 조절효과를 분석한 결과 안전성과 쾌적성을 제외한 편리성과 귀농만족도 간 가족지지의 조절효과가 나타남으로써 가설 7-1은 채택되었고, 7-2, 7-3은 기각되었다. 여덟째, 가설 8인 귀농지원정책과 귀농만족도 간 가족지지의 조절효과를 분석한 결과 가족지지의 조절효과가 나타나지 않음으로써 가설 8-1, 8-2, 8-3은 기각되었다.

6.2 연구의 시사점

본 연구의 시사점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농촌흡인 요인 중 경제적 요인이 귀농 만족에 가장 큰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귀농자들에게 있어서 창농 또는 영농으로 지속적인 경제활동이 가능한 점과 퇴직의 우려가 없는 평생직장이 될 수 있다는 것은 많은 은퇴자와 젊은 구직자들을 농촌으로 흡입하는 효과가 있을 것이다.

둘째, 귀농준비 중 작목준비는 귀농 후 생산 활동을 통해 수입과 연관된다. 적합한 작목 선택은 2차 제품 생산과 3차 농촌 체험 서비스와도 직접적인 연관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작목선정과 관련된 전문적인 교육은 귀농인의 수익증대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셋째, 귀농지 주거환경 중 안전성은 귀농만족도에 높은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도시의 경우 치안이 잘되어있고, 자연재난에 대응하는 토목시설과 방재 시스템이 체계적으로 관리되는 반면 농촌은 사건과 재난 발생 시 즉각적인 대처가 어려운 단점이 있다. 그러므로 농촌 주거환경이 치안과 자연재해로부터 안전한곳이 되기 위해 지자체의 기반시설 확충이 필요할 것이다.

넷째, 귀농지원정책 중 창농지원은 귀농 만족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1차 생산의 역할에 그쳤던 농가들이 2차 3차 서비스를 가능하게 하는 6차 산업이 활성화됨에 따라 창농을 하고자 하는 귀농자들이 많아졌지만 아직은 그 절차와 필요로 하는 자금지원이 원활히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가 대부분이다. 그러므로 지속적 귀농인구의 유입과 귀농 만족을 높이기 위해서는 문턱이 낮은 자금 지원정책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다섯째, 경제적 요인과 귀농만족도 간 가족지지의 조절효과가 나타난 것은 귀농에 있어서 귀농자 뿐 아니라 직접적인 영향을 주고받는 가족 또한 삶의 질과 연관되는 경제적 문제가 해결되어야 귀농만족도가 높아 질 것으로 예상된다.

6.3 연구의 한계점

본 연구의 한계는 연구 대상이 귀농인으로 일반 대상자에 비해 상대적으로 적었고 237명으로 한정되어 연구의 제한점이 많았다. 더 많은 대상을 표본으로 한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REFERENCE

- 강대규(2007). 귀농동기에 따른 귀농정책 과정, *한국농업교육학회* 39(1), 59-98.
- 강대규·김경남·김민수·이용·변규식(2006). *최근 귀농실태와 지원대책방안 연구*. 과천: 농림부.
- 강미나(2012). *농촌지역 주거수준향상을 위한 농촌주택 정책방향 연구*, 국토연구원.
- 권은희(2003). *벼줄종 환자의 재활동기에 관한 연구: 개인 및 가족지지 요인을 중심으로*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논문.
- 김성수·정지웅·임형백·고운미·김정태·이성(2004). 귀농자들의 농촌 정착지원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방향. *한국농촌지도학회* 11(1), 53-65.
- 김성원(2009). *귀농 귀촌 종합대책 농촌경제 활력화를 위한 지자체의 귀농 귀촌 대응방안* 토론회. 전라북도청.
- 김숙정(1987). 혈액 투석 환자가 지각한 가족지지와 생활적응의 연구, *광주보건대학논문집* 12, 75-91
- 김유일(1988). *주거만족도에 관한 경험적 연구*. 한양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김정섭(2009). 귀농, 귀촌 활성화를 위한 농촌 지방자치단체의 과제. *농촌지도와 개발* 16(3), 533-556.
- 김정섭·이정해(2017). 최근 귀농·귀촌 실태와 시사점.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농정포커스* (151), 1-20.
- 김철규·이해진·김기홍·박민수(2011). *귀농·귀촌인의 성공적 정착과 농촌사회 발전 방안연구*, 농림수산식품부.
- 김태현(2011). *노년학*. 서울: 교문사.
- 김현실·조미여(1992). 중환자가 지각한 가족지지와 절망감과의 관계연구, *대한간호학회지* 22(4), 620-635
- 농림수산식품부(2017). *귀농·귀촌인 통계 결과*, 농림수산식품부
- 박경옥·이상운(2012). 정부 및 지자체의 귀농·귀촌을 위한 주거환경 지원정책의 유형 분석, *생활과학연구논총* 16, 143-154.
- 박공주(2006). *은퇴 후 귀농인의 농촌 이주준비 및 적응에 관한연구*, 중앙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박광희·한혜경(2002). 농촌노인의 생활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한국노년학연구* 11, 43-61.
- 박남규·김명숙·고종욱(2015). 정부의 창업지원정책이 창업가의 기업가정신 및 창업의지에 미치는 영향. *벤처창업연구* 10(6), 89-98.
- 박은경(2008). *귀농인 이주만족도 조사연구-영월지역 은퇴 후 귀농인을 중심으로* 서울시립대학교석사학위논문.
- 서규산·변재면(2000). U턴 귀농자 장단지 교육 프로그램 개발. *한국농촌지도학회지* 7(1), 137-153.
- 서병숙·이현(1995). 사회적 지원망과 노인의 생활만족도, *대한가정학회지* 33(3), 43-57.
- 윤순덕·강경하·박공주·이정하(2005). 도시 장년층의 은퇴 후 농촌이주 의사 결정요인. *한국노년학* 25(3), 139-153.
- 이명호·송두한·허훈(2013). *귀농·귀촌 활성화를 위한 정부예산의 효율적 지원방안에 관한연구*, 국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

- 이민수(2010). *농촌지역 일자리 창출 방안*. 전주: 전북발전연구원.
- 이재철·이도선(2006). *지역밀착형 귀농인력개발 및 활용 방안*, 대구 경북연구원.
- 이정관(1998). *귀농자의 영농정착과 관련된 특성분석*. 공주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한국농촌경제연구원(2012a). *귀농 귀촌과 농촌 주거환경 정책*, 귀농·귀촌 정책 연구 포럼/제 3 차 전문가 세미나, 한국농촌경제연구원, 1-105.
- 한국농촌경제연구원(2012b). *귀농 귀촌과 농촌 주거환경 정책*, 귀농·귀촌 정책 연구 포럼/제 3 차 전문가 세미나, 한국농촌경제연구원, 1-105.
- 이환의(2011). *귀농귀촌 준비 및 농어촌 정착 과정과 정책 수요*. 한국농촌경제연구원, 39-58.
- 이희연·박정호(2009). 경로분석을 이용한 인구이동 결정요인들 간의 인과구조, *한국경제지리학회지*, 12(2), 123-141.
- 이희찬·김현(2006). 도시민의 농촌지역 이주의향에 관한 연구, *농어촌관광연구*, 13(2), 127-149.
- 임혜영(1999). *귀농자의 적응과 복지에 관한 연구*, 광주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정철영(1999). 농업인력의 육성 실태와 개선 방안에 관한 연구, *농업교육과 인적자원개발*, 31(2), 111-137.
- 조영숙·황대용·박은식·고정숙(2004). 농촌주민의 지역사회 만족도와 지역공동체 의식, *한국지역사회생활과학회지*, 15(4), 113-125.
- 조영재·조은정(2013). 농촌지역 귀농·귀촌인 정주현황 및 커뮤니티 실태 분석 : 충청남도를 중심으로, *한국농촌계획학회*, 19(4), 191-202.
- 조창완·김희승·서정원(2007). *전남지역 밀착형 귀농인력 개발 및 활용방안*. 전남발전연구원.
- 최윤지·황정임·이상영·조영숙(2010). 귀농 준비 도시민의 요구사항 분석, *한국지역사회 생활 과학회 학술대회 자료집*, 134-134.
- 허철무·하규수(2014). 귀농자의 귀농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요인 연구. *벤처창업연구*, 9(2), 233-250.
- Baek, Y. N.(2005). *A Study on the Effect of Family Support and Self-care Behaviors on the Quality of Life Perceived by Diabetic Patients*, The Graduate School Soongsil University.
- Bosworth, G.(2006). Counterurbanisation and Job Creation: Entrepreneurial In-Migration and Rural Economic Development. Newcastle: Centre for Rural Economy.
- Cho, Y. J.(2013). An Analysis on the Actual State of the Settlement and the Community of People Returning to Rural Areas : Focused in Chungnam Province, *Journal of Korean Society of Rural Planning*, 19(4), 191-202.
- Cho, Y. J., & Cho, E. J.(2013). *An Analysis on the Actual State of the Settlement and the Community of People Returning to Rural Areas : Focused in Chungnam Province*, Korean Society Of Rural Planning.
- Cho, Y. S., Hwand, D. Y., Park, E. S., Ko, J. S.(2004). Rural Resident's Community Life Satisfaction and Consciousness of Rural Community, *Korean J. Community Living Science*, 15(4), 113-125.
- Choi, Y. J., Hwang, J. L., Lee, S. Y., & Cho, Y. S.(2010). Preparation for Rural-returning Urban people Requirements Analysis, *The Korean Society of Community Living Science*, 134-134
- Hee, Y. L., & Jung, H. P.(2009). The Structure of Interrelationship Among the Influential Factors of Migration Using Path Analysis, *Journal of the Economic Geographical Society of Korea*, 12(2), 123-141.
- Heo, C. M., & Ha, K. S.(2014). Study on the Influential Factors of Back to Farmer's Satisfaction to Rural Life, *Asia-Pacific Journal of Business Venturing and Entrepreneurship*, 9(2), 233-250
- Jyung, C. Y.(1999). A Study on Current Status and Directions of Education and Training for Agricultural Manpower, *Journal of Agricultural Education and Human Resource Development*, 31(2), 111-137.
- Kang, D. G.(2007). Adaptation Process with Return Motive Type of Return Farmers, *Journal of Agricultural Education and Human Resource Development* 39(1), 59-98.
- Kang, D. G., Kim, K. N., Kim M. S., Lee, W., & Byun, K. S.(2006). *A Study on the Actual Situation of Rural-returning and Support Measures*. Gwacheon: Ministry of Agriculture and Forestry
- Kang, D. K.(2007). Adaptation Process with Return Motive Type of Return Farmers, *Journal of Agricultural Education and Human Resource Development*, 39(1), 59-98.
- Kang, M. N.(2012). A Rural Housing Policy for Improving Housing Service Level , Korea Research Institute for Human Settlements.
- Kaplan, B. H., Cassel, J. C., & Gore, S.(1977). Social Support and Health, *Medical Care*, 15(5), 47-58. .
- Keeble, D., Tyler, P., Broom, G., & Lewis, J.(1992). Business success in the countryside: the performance of rural enterprise. HMSO.
- Kim T. H.(2011). *Gerontology*, Seoul: Gyomonsa.
- Kim, J. S.(2009). What Can Local Governments Do to Help People Returning to Rural Areas?, *Journal of Agricultural Extension & Community Development Korean Association of Agricultural Extension*, 16(3), 533-556.
- Kim, J. S.(2009). What can local governments do to help people returning to rural areas?, *Journal of Agricultural Extension & Community Development*, 16(3), 533-556
- Kim, S. J.(1987). A Study on the Correlation among the Perceived Family Support and Quality of Life on the Part of Hemodialysis Patients, Kwangju Hwalth Junior College.
- Kim, S. S., Cheong, J. W., Lim, H. B., Koh, W. M., Kim, J. T., & Lee, s.(2004). Direction of Program Development for Supporting U-turn Farmers' Rural Settlement, *Korea J. of Ag. Extension*, 11(1) 53-65.
- Kim, S. W.(2009). Return to rural areas Comprehensive measures, Chonbuk Provincial Government.
- Kim, Y. I.(1988). *(An) Empirical Study on the Residential Satisfaction: With Special to the Apartment Households in Seoul Metropolitan Area*, Doctoral dissertation, The Graduate School of Han Yang University, Seoul.
- Kim. H. S., & Cho, M. Y(1992). Family Support and Hopelessness in Patients Admitted to Neuro-Surgical Intensive Care Unit,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Nursing*, 22(4), 620-635.
- Korea Rural Economic Institute(2012a). *Rural returning and Rural Housing Environment Policy*, Rural returning

- Policy Research Forum/Third Expert Seminar, Korea Rural Economic Institute research data, 1-105.
- Korea Rural Economic Institute(2012b). *Rural returning and Rural Housing Environment Policy*, Rural returning Policy Research Forum/Third Expert Seminar, Korea Rural Economic Institute research data, 1-105.
- Kwon, E. H.(2003). *A Study on the Rehabilitation Motive of Stroke Patients : Focused on Individual and Family Support Factors*, Master's thesis, The Graduate School of Ewha Womans University.
- Kwon, O. B.(2016). *A Study on Correlation between Prep-Entrepreneur' Psychological Characteristics / Background Traits and Franchise Selection Factors*, Department of Entrepreneurship Consulting The Global Entrepreneurship Graduate School Hoseo University.
- Lee, E. S.(1966). *A Theory of Migration*, Demography, 3(1).
- Lee, H. C., & Kim, H.(2006). A Study of Migration Intention to Rural Community of City Dweller, *Green Tourism Research*, 13(2), 127-149.
- Lee, H. Y.(2011). Prepare Farm-returning and Rural-returning Rural settlement process and policy demand, *Korea Rural Economic Institute*, 39-54.
- Lee, J. C., & Lee, D. S.(2006). *Close contact Rural-returning human resources development and utilization plan*, Daegu Kyungbuk Development Institute.
- Lee, J. G.(1998). *A Study on the Analysis of Characteristics Related with Farming Resettlement of Urban - to - Rural Migrants*, Master's thesis, Graduate School of Industrial DevelopmentKong ju National University.
- Lee, M. H., Song, D. H., & Hu, H.(2013). *A Study on Effective Support of Government Budget for the revitalization of Rural-returning*, Special Committee on Budget & Accounts
- Lee, M. S.(2010). *Create jobs in rural areas*, Jeonbuk Development Institute.
- Lim, H. Y.(1999). *Urban-Rural Return Migrants' Adaptation and Welfare: A Study on Migrants in Chonnam Province*, Master's thesis, The Graduate School Kwangju University.
- Mark Orville Medford(1986). Perceived Challenge as a Determinant of Job Satisfaction and Involvement as Moderated by Individual Differences,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Claremont Graduate School, p. 1.
- Park, K. H., & Han, H. K.(2002). Predictors of Life Satisfaction for the Elderly Persons who Reside in the Rural Area, *Korean Journal of Research in Gerontology*, 11, 43-61.
- Park, K. J.(2006). *The Study of Migration Preparation and Adaptation to Rural Area of Returning Farmer after Retirement*, Master's thesis, The Graduate School of Chungang University.
- Park, K. O., & Lee, S. W.(2012). Analysis of the Types of the Residential Environment Support Policy by Central & Local Governments, *KOREAN LIVING SCIENCE ASSOCIATION*, 16, 143-154.
- Park, K. O., & Lee, S. W.(2012). Analysis of the Types of the Residential Environment Support Policy by Central & Local Governments, *Journal of Human Ecology*, 16(1), 143-154.
- Park, N. G., Kim, M. S., & Ko, J. W.(2012). The Effect of the Government's Entrepreneurial Support Policy on Entrepreneurship and Entrepreneurial Intention, *Asia-Pacific Journal of Business Venturing and Entrepreneurship*, 10(6), 89-98.
- Park, E. K.(2008). *Investigation on Satisfaction of Urban-to-Rural Migrants Dwelling in Youngwol Area*, Master's thesis, The Graduate School University of Seoul.
- Seo, B. S. & Lee H.(1995). The Social Support Network and The Life Satisfaction of Elderly : The Comparison of The Urban and The Rural Elderly, *Family and Environment Research*, 33(3), 43-57.
- Seo, K. S.(2000). Development of Long and Short-run Educational Programs for U-turn Farmers, *Korean journal of agricultural extension*, 7(1), 137-153.
- Yoon, S. D., Kang, K. H., Park, G. J., & Lee, J. H.(2005). Determinants of Migration Intention to Rural Area after Retirement among Urban Residents in Korea, *The Korea Gerontological Society*, 25(3), 139-153.

Analysis of the Influence Factors on Satisfaction of Returning to Farming in Farm-returning and Rural-returning : With Moderating Effect of Family Factor

Lee, Ji Heum*
Ha, Kyu Soo**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nvestigate the effects of the rural migration factors, degree of preparation for migration, lifestyle conditions and support policies reflected against the family satisfaction of the migration. In this study family factors were used as control variables. Independent variables for this study will consist of the factors of rural migration, the degree of preparation for migration, living conditions of the farmers and the support policies, where as the dependent variable is the satisfaction of migration with an adjusting factor of the family satisfaction which will be further analysed to identify its effects on the dependent variable. For this study, a questionnaire survey was conducted for the residents and 237 valid questionnaires were collected.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was performed based on the collected data where demographic attributes being the controlling variable, and regression analysis was performed for the adjusting variable of the family. As the economic factor increases, the level of satisfaction generated to be higher in rural migration. As for the degree of preparation, living condition and support policies resulted, great quantity of green nature, safety and agriculture startup support, respectively, indicated a positive effect to the satisfaction level of migration. From the results, adjustment effect of the family factors on the economic, nature, convenience and satisfaction of the migration have appeared.

The conclusion of this study is that policy support, regional stability, and economic gain are the most important factors to increase satisfaction and to reduce re-migration rate to city.

Keywords: Migration, Rural Migration Factors, Migration Preparation, Migration Environment, Migration Policy, Migration Satisfaction, Family Support.

* Doctoral Course, Graduate School of Venture at Hoseo University, land75@naver.com

** Professor, Graduate School of Venture at Hoseo University, ksh@hoseo.edu